

주인 없는 고양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께

- **이웃주민의 이해를 얻은 후에 돌보
시다**
울음소리나 배설물로 인한 피해로
난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웃주
민들과 미리 상의하고 배려하면서
돌보시다.
-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바로 치우
도록 합시다**
먹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까마귀나
해충이 모여들어 비위생적입니다.
- **배설물을 치웁시다**
고양이용 변소를 설치하고 배설물을
쉽게 치울 수 있도록 합시다.
- **중성화수술을 시킵시다**
새끼를 낳지 않도록 함으로써 돌봐주
는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고양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해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면 사람
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방재대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 펫푸드나 물, 상비약(적어도 각각 5일
분 이상), 반려동물용 그릇·목걸이·
리드 줄·변소 용품 등을 준비하고 있
습니까?
- 광견병 등 각종 예방주사를 맞으셨습
니까?
- 감찰·광견병 예방주사 필증, 미아 방
지 명찰, 마이크로칩을 달고 있습니까?
- 반려동물이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케
이지에 들어갑니까?
- 화장실 등 정해진 곳에서 배설을 합니까?
- 낯선 사람이나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
습니까?
재해 발생 시에는 사람도 반려동물도
낯선 곳에서 피난생활을 보내게 됩니
다. 배설, 두려움 극복, 케이지 들어가
기 등은 훈련을 통해 개선됩니다. 만일
의 경우에 대비해 평소에 연습을 시키
도록 합시다.

문의처
미나토구 보건소생활위생과 생활위생
상담계

犬と猫と暮らす 平成 30 年(2018 年)5 月発行
発行番号 4211 - 30041

개,고양이와 함께 하는 삶



각 지역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 매너와
규칙을 지켜 반려동물을 잘 키웁시다.
미나토구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이웃주민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짖는 소리나 냄새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미나토구 보건소
港区みなと保健所

개를 키우고 계시는 분께

● 반려견 등록을 하고,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도록 합니다

일본에서는 광견병예방법에 따라, 반려견에 대해 한번의 등록과 매년 1회의 광견병 예방주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은 미나토구에 신고를 하셔서 감찰을 교부받으시고 예방주사를 맞힌 후에 주사 필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부받으신 감찰 및 주사 필증은 반려견의 목걸이 등에 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시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찰 교부 수수료 3000엔
주사 필증 교부 수수료 55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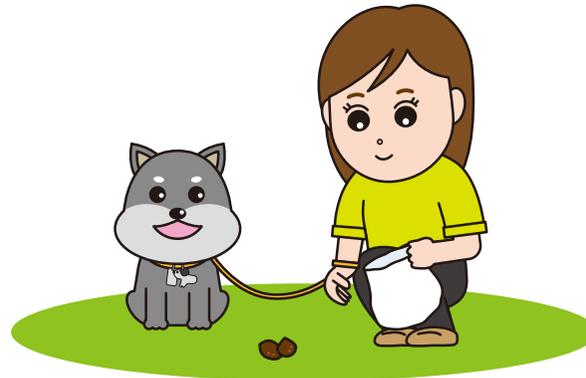


● 배설물은 수거해 갑시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 자택으로 가지고 갑시다. 산책 중에 소변을 봤을 때는 반려견용 물티슈를 사용해서 닦아낸 후 물을 뿌려 씻어 내도록 합니다.

● 반려견은 반드시 리드 줄을 매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반려견을 리드 줄로 매도록 합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길이조절이 가능한 리드줄은 반드시 짧게 고정된 상태에서 산책을 시키고, 길이가 일정한 타입의 리드줄은 짧게 잡고 산책을 시킵시다.



반려묘를 키우고 계시는 분께

● 집 안에서 키웁시다

반려묘는 수직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되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스트레스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려묘가 외출을 할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미아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키우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아 방지 명찰, 마이크로칩을 달도록 합니다.

● 중성화수술을 시키도록 합니다

중성화수술은 번식 행동이나 성호르몬과 관련된 병을 예방하고, 건강과 장수 뿐만 아니라 발정기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